바울은 왜 로마서 2장에서 행위 심판을 말하는가?

-시편 61편(LXX)에 대한 바울의 해석 논쟁-

김경식*

1. 서론[1)]

신약 저자들과 초대교회는 구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에 직접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구약의 가르침과 권위를 그래도 인정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신약 저자가 구약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구약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저자 당시에 유행하거나 받아들여진 특정 구약 본문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초기 유대교의 구약 해석이라는 렌즈를 통해 구약 본문의 의미를 보고 이를 그 구약 본문의 의미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구약 본문을 사용함에 있어 초기 유대교의 해석을 반박하면서 신약 저자가 구약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이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구도가 신약 저자가 초기 유대교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 횃불 트리니티대학원 대학교 및 안양대학교 강사, 신약학

1) 본 글은 한국기독교학회 편, 「기독교 신학 논총」 49 (2006. 10.), 27-49, "외국어 논총" 부분에 영어로 실린 내용을 번역, 수정한 글임을 밝힌다.

구약에 직접 호소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도는 신약 저자들이 초기 유대교의 구약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점은 앞의 것이 초기 유대교의 해석과의 유사성과 공통점에 근거하고 있다면, 세 번째의 구도는 신약 저자와 초기 유대교 해석(들)간의 해석상의 차이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로마서 2:1-11의 본문을 통해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세 번째의 과정을 밝고 있는 바울의 구약 해석을 다룬다. 이 연구를 통해 바울의 구약 사용의 관점에서 로마서 2:1-11을 접근하는 것이 이 본문 해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로마서 2장은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2:6-11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로마서 3장에서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롬 3:10)고 주장하여 근접 문맥인 2장과 3장 사이에서 정반대의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의 난제 가운데 2:6-11과 관련된 것으로,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질문은 2:7과 2:10에 나오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행위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 2장의 행위 심판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관련해서 연구해 왔다.[2]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바울

2) Karl Paul Donfried, "Justification and Last Judgment in Paul," *Interpretation* 30 (1976), 140-152; Nigel M. Watson, "Justified by Faith; Judged by Works-An Antinomy?" *New Testament Studies* 29 (1983), 209-221; Klyne R. Snodgrass, "Justification by Grace-To the Doers: An Analysis of the Place of Romans 2 in the Theology of Paul," *NTS* 32 (1986), 72-93; Thomas Schreiner, "Did Paul Believe in Justification by

에 대한 새 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 이론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대립 구도를 믿음과 행함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에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시도해 왔다. 즉,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 이방인은 할례, 음식법, 안식일 법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주장이라고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였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전통적 주장(믿음과 행위의 대립 구도)이든 후자의 새 관점 주장(믿음과 선민사상의 대립 구도)이든 로마서 2:1-11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점을 간과해 왔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2:13(61:13, LXX)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이 이 시편의 초기 유대교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2:6의 행위 심판이 구약의 어떤 특정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 디이터 젤러(Dieter Zeller)에 의하면, 로마

Works?: Another Look at Romans 2,"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3 (1993), 131-158.

3) "율법의 행위"에 관한 논란은 최근에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와 관련해서 바울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사이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이론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란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다(What the law required of Israel as God's people).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Edinburgh: T&T Clark, 1998), 355. 새 관점 이론은 두 가지 큰 전제 위에 서 있다. 먼저, 1) 바울 당시의 유대교, 더 나아가 초기 유대교는 언약적 율법주의로 요약되는 '은혜의 종교'였다는 전제와, 둘째로 2)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이 그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과정에서 유대주의자들과 논쟁하면서 만들어 낸 바울의 상황적 가르침이라는 전제이다.

4) Roman Heiligenthal, *Werke als Zeichen: Unterschungen zur Bedeutung der*

서 2:6은 잠언 24:12와 시편 61:13(LXX)의 단어들을 단지 빌려만 쓸 뿐이지, 실상은 유대인의 지혜 전승에 속하는 것이다.[5] 쥬엣 바슬러(Jouette M. Bassler)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데, 그녀는 바울은 여기에서 단지 동해 복수법(talio)의 기본원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6] 물론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고 관찰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시편 61:13(LXX)이, 다른 이들은 잠언 24:12이, 또 다른 이들은 아예 시편 61:13(LXX)과 잠언 24:12 둘 다 인용되고 있다고 보았다.[7] 하지만 이들 중 어떤

Menschlichen Taten im Frühjudentum; *Neuen Testament und Frühchristentem*, WUNT 2/9 (Tübingen: J. C. B Mohr, 1983), 174; Jouette M. Bassler, "Divine Impartiality in Paul's Letter to the Romans," *NT* 26, 1 (1984), 48; James D. G. Dunn, *Romans 1-8* (Dallas: Words, 1988), 85; Douglas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96), 136; K. L. Yinger, *Paul, Judaism and Judgment According to Deeds* (Cambridge: CUP, 1999), 157.

5) Dieter Zeller, *Der Brief an die Römer* (Regensburg: Pustet, 1985), 65.

6) Bassler, "Divine Impartiality in Paul's Letter to the Romans," 48.

7) 시편 62:13을 사용했다는 견해는 다음을 보라. Ernest Best, *The Letter of Paul to the Romans* (Cambridge: CUP, 1967), 25; Ulrich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Romer 1-5)*, 3rd ed., EKK VI/1 (Zrich and Dsseldorf: Benziger, 1997), 126; Richard H. Bell, *No One Seeks for God: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Romans 1.18-3.20* (Tübingen: Mohr Siebeck, 1998), 131-141; S. J.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Early Jewish Soteriology and Paul's Response in Romans 1-5* (Grand Rapids: Eerdmans, 2002), 125; 잠언 24:12을 인용했다는 견해는 다음의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Sanday & Headlam,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Edinburgh: T&T Clark, 1900); 시편 62:13과 잠언 24:12 둘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들은 다음을 보라. C. K. Barrett,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2), 45;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1 (Edinburgh: T&T Clark, 1998; org. ed. 1975), 146; John Ziesl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London: SCM, 1989), 82; Richard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42; Peter

의견도 왜 바울이 로마서 2:6에 나오는 가상적인 유대인 토론자와 논쟁하는 문맥에서 구약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로, 로마서 2:6과 로마서 2:7 이하 구절의 관계에 대해 빌켄스(U. Wilckens)는 바울이 7-10에서 2:6에서 인용된 시편의 종말론적이고 법정적인 의미를 능숙한 수사적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8] 하지만, 그는 이 주장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으며, 로마서 2:6-10을 시편 62편(LXX 61)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째, 과연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일로 시작하여, 둘째, 로마서 2:1-11과 초기 유대교 문헌인 시락서와 솔로몬 시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순서를 밟을 것이다. 셋째, 바울이 로마서 2:1-11에서 어떻게 이 초기 유대교 문헌에 등장하는 시편 62편의 해석을 반박하는지 밝힐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도바울이 시락서 32:24-26 ff, 솔로몬 시편 2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기 유대교인들의 시편 61편(LXX) 해석을 반박하고 있으며, 바울은 시편 61:13(LXX)을 사용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택 사상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비난하고 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시편 61편(LXX)을 로마서 2:6-11에서 인용하고 또 설명하면서 최후 심판의 기준을 재정의하여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며, 그 결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아래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Stuhlmach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Commentary*, Scott J. Hafemann, trans. (Edinburgh: T&T Clark, 1994), 41.

8)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126.

2. 바울, 로마서 2:6의 행위 심판, 시편 61:13(LXX)

로마서 2:6은 시편 61:13(LXX)의 비표시적 인용(unmarked citation)이다.[9]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문자적 유사성(verbal similarity), 개념상의 유사성(conceptual similarity) 그리고 주제적 유사성(thematic agreement)을 중심으로 이 두 본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2.1. 문자적, 개념적 유사성

많은 구약 본문들 가운데, 일단 시편 61:13(LXX)과 잠언 24:12가 로마서 2:6에 사용된 구약 본문으로 보인다. 우선, ἑκάστῳ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라는 구절이 이 세 개의 본문들 속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로마서 2:6과 잠언 24:12(LXX)은 문법적으로 더 유사한데, 두 본문 모두 다 관계대명사 ὅς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장 맨 앞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시편 61:13(LXX)에는 이 관계대명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6과 시편 61:13(LXX)은, 같은 동사(ἀποδίδωμι)가 똑같은 미래 시제로 쓰이고 있다. 반면에 잠언 24:12(LXX)의 아포디도미(ἀποδίδωμι)동사는 현재 시제이고, 로마서 2:6에 나오는 아포디도미(ἀποδίδωμι)는 미래 시제로 서로 다르다. 이러한 문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본문 사이에는 문자적 유사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문법적 차이가 우리의 연구 대상인 각기 세 본문의

9) 비표시적 인용(unmarked citation)이라는 말은 두 본문(구약과 신약) 사이에 눈에 띄는 현저한 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용문 서두나 후미에 성경에 이르기를 "기록된 바와 같이" 등의 인용 형식구(citation formula)가 존재하지 않는 인용문을 가리킨다.

행위 심판을 나타내는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아니다. 또한 바울이 구약 본문을 채용하면서 문법적인 요소들을 약간씩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문자적 유사성은 로마서 2:6의 구약 본문을 밝혀내는데 그리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잣대인 개념상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로마서 2:6에서 쓰이고 있는 구약 본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잣대였던 문자적 유사성이 시편 61:13과 잠언 24:12 두 구약 본문 가운데 어떤 본문이 로마서 2:6에 쓰이고 있는지 밝히지 못했지만, 두 번째 잣대인 개념상의 유사성은 로마서 2:6에서 바울이 시편 61:13(LXX)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편 61:13(LXX)에서 심판(=갚아주심, 보응, 상과 벌)을 받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 둘 다를 포함한다. 즉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그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또한 악인은 그들이 핍박한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는다. 결국, 시편 61:13(LXX)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 둘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잠언 24:12는 오직 악인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하나님은 곧 죽게 될 무죄한 사람에 대해 선을 행치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악인들을 벌하신다. 다시 말해, 잠언 24:12은 오직 하나님의 정죄(처벌)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시편 61:13(LXX)이 로마서 2:6에서 쓰이고 있는 구약 본문임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시편 61편(LXX)과 유사하게, 로마서 2:7-10에서 의인의 상과 악인의 처벌, 둘 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2.2. 주제상의 유사성

더 나아가, 시편 61편(LXX)과 로마서 2:1-11 사이에는 비슷한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첫째, 로마서 2:1-11과 시편 61편(LXX)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상이 언급된다. 시편 61:13(LXX)의 근접 문맥은 각각의 행위에 따라 의인을 상주시거나, 악인을 벌하심으로써 결국 의인들을 옹호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자비하심(ἔλεος)때문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변호하신다. 이와 유사하게, 로마서 2:4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상이 "χρηστότης"와 "χρηστός"로 표현되고 있다. 로마서 2:4의 자비함이라는 사상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한편, 시편 61:13(LXX)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들을 상 주신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된 이런 대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한다.

둘째, 바울은 로마서 2:1-11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들의 묘사를 시편 61편(LXX)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의인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중에, 로마서 2장과 시편 61편(LXX)은 둘 다 인내(ὑπομονή), 영광(δόξα), 존귀(τιμή)라는 단어들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로마서 2장과 시편 61편(LXX)은 둘 다 악인을 언급하면서 불의(ἀδικία)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비록 시편 61편(LXX), 잠언 24:12(LXX), 로마서 2:6 사이에 문자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념상의 유사성과 유사한 주제들의 평행은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뒷받침해 준다.

3. 로마서 2:1-11과 초기 유대교 문헌들

다음으로 우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바울이 왜 로마서 2:6에서 다른 구약 본문이 아닌 시편 61:13(LXX)을 인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성서 해석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행위 심판'에 관해 바울 당시 유대인과 논쟁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바울의 토론 상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행위 심판이 시락서 32:24-26(=35:22-24, Rahlfs)과 솔로몬 시편 2:32 이하에 반영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반면에 바울은 이들 초기 유대교 문헌들이 근거하고 있는 시편 61편(LXX)에 직접 호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시편을 이 두 초기 유대교 문헌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10]

어떤 학자들은 지혜서가 로마서 2장에 중요한 사상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예를 들면, 나이그렌(Nygren)은 지혜서(Wisdom) 11-15장이 로마서 2장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 더 나아가 그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지혜서 11-15장이 대표하고 있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 사상과 논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 이와 비슷하게, 던(Dunn)도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토론 대상자를 유대인이라 규정하면서 바울은 지혜서에 나타나고 있

10) 필자는 본 논문에서 시락서의 헬라어 본문으로 Joseph Ziegler, *Sapientia Iesu Filii Sira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을 사용할 것이다. Ziegler의 시락서 본문의 장절 구분은 Rahlfs의 LXX판 시락서의 장절 구분과 약간 다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Rahlfs의 장절은 괄호로 표시할 것이다.

11) Anders Nygren, *Commentary on Romans*, Carl C. Rasmussen, trans.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49), 114.

12) Anders Nygren, *Commentary on Romans*, 115.

는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주장한다.[13] 지즐러(Ziesler) 또한, 로마서 2:1-10이 지혜서 11장, 12장, 15장에 나오는 사상과 유사하다고 의견을 펼친다.[14] 라이트(Wright)도 바울이 지혜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문헌과 논쟁하고 있다고 본다.[15]

이런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필자가 볼 때 바울은 시락서 32:24-26 이하 그리고 솔로몬 시편 2:32 이하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행위 심판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첫 번째로, 로마서 2:6, 시락서 32:24(LXX), 솔로몬 시편 2:34은 공통적으로 행위 심판 즉,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주제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로마서 2:6에서 행위 심판은 악인과 의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것이라면, 시락서 32:24과 솔로몬 시편 2:34의 행위 심판은 이방인 나라들의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은 바울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벌)주신다는 사상을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벌로 갚으신다는 보편적 행위 심판을 언급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세 본문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롬 2:4; 시락서 32:25-26; 솔로몬 시편 2:33, 35, 36).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원천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락서 32:25-26, 솔로몬 시편 2:33-35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을 변호(옹호)하시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사상에 대한 이

13) Dunn, *Romans 1-8*, 8

14) Ziesl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80-84.

15) N. T. Wright, "The Letter to the Roma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10 (Nashville, TN: Abingdon, 2002), 438.

들 문헌들 사이에도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바울이 로마서 2장의 논지를 위해 초기 유대교 문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재해석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로마서 2장, 시락서 32장, 그리고 솔로몬 시편 2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롬 2:11; 시락서 32:15; 솔로몬 시편 2:11). 로마서 2장의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이라는 사상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같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솔로몬 시편 2:18에 나오는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은 이방의 억압자들뿐 아니라, 범죄한 유대인들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6] 시락서 32:15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은 고아와 과부, 더 나아가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시락서 32장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의 사상은 이방 나라가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위의 세 가지 주제들이 세 본문들에 함께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2:1-11에서 시락서 32:24 이하 구절, 솔로몬 시편 2편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주목해 보아야할 점은 바슬러(Bassler)가 관찰했던 것처럼, 행위 심판과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이라는 두 주제가 외경과 위경 문헌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본문들에서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시락서 35:12-19/Rahlfs판; T. Job 4:7; 솔로몬 시편 2:17-19).[17] 이 같은 바슬러의 주장은 로마서 2장과 시락서 32장(=35, Rahlfs), 솔로몬 시편 2편 사이의 주제상의 긴밀한 평행이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16) J. M. Bassler, *Divine Impartiality: Paul and a Theological Axiom* (Chico: Scholars Press, 1982), 32-33.

17) Bassler, "Divine Impartiality in Paul's Letter to the Romans," 49.

로마서 2:6-11, 시락서 32:24 이하 구절, 솔로몬 시편 2편간의 밀접한 관계는 이 본문들(시락서 32:24; 솔로몬 시편 2:16, 34)이 똑같은 구약 본문인 시편 61:13(LXX)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더 분명해진다.[18] 또한 문맥을 고려해 보면, 시락서 32:22 이하 구절, 솔로몬 시편 2:32 이하 구절, 로마서 2:1-11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나라들을 향해 가지시는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증거들은 바울이 로마서 2:1-11에서 초기 유대교 문헌인 시락서 32:24 이하 구절, 솔로몬 시편 2:33 이하 구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강화시켜 준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서 2장에서 지혜서의 영향과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은 시락서 32:24-26, 솔로몬 시편 2편 또한 바울이 로마서 2:1-11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유대교 문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19] 게다가, 로마서 2장, 지혜서, 솔로몬 시편, 시락서 사이의 많은 주제상의 평행들은 로마서 2장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바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사상이며, 더 나아

18) Kyoung-Shik Kim,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the Investigation into the Use of Psalm 62:13 in Early Jewish Literature and the New Testa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berdeen, 2005), 78-80, 112-115; Kyoung-Shik Kim, *God Will Judge Every One According to Their Works: Psalm 62:13 and Judgment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iblical Tools and Studies (Leuven: Peeters, forthcoming).

19) 로마서 2장에서의 지혜서 사용에 관한 논의는 Francis Watson, *Paul and Hermeneutics of Faith*, 405-411을 보라. 그는 바울이 솔로몬 지혜서 13-15이 제공하고 있는 밑그림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05.

가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20]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사상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일 로마서 2:1-11, 시락서 32:22-26 이하 구절, 솔로몬 시편 2편이 세 가지 공통된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우리의 견해가 사실이라면, 사실 바울은 로마서 2:1-11에서 그의 가상의 유대인 논쟁 상대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행위 심판에 관한 '성서 해석 논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락서 32:24-26(35:22-24, Rahlfs의 LXX)와 시락서 33장은 이방인 압제자 밑에 있는 유대인들의 곤경을 다루고 있다.[21] 특별히 시락서 32:22-24는 이방인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언급하는데, 이방 압제자들은 무자비하고(ἀνελεημόνων), 거만하며(ὑβριστῶν), 불의(ἀδίκων)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락서의 저자(그리고 시락서의 헬라어 번역본)는 하나님이 이런 이방 압제자들에게 보복하시길 기도한다(32:22-24).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락서(그리고 시락서 헬라어 번역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들의 행위와 생각대로 벌 주시기를 요청한다는 점이다.

시락서 32:22b-24의 주된 관심사가 이방 나라들과 이들에 대한 행위 심판을 위한 기도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시락서 32:25-26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25절은 분명하게 시락서와 이것의 헬라어 번역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 Contra Yinger. Yinger의 주장에 의하면 "언약적 특권에 대한 이러한 가설적인 오용은 결코 제 2성전기 유대교의 특징이 아니다…유대 문헌을 기록한 사람들 자신도 행위 심판의 모티브를 그러한 가정에 대항하여 사용하고 있다." Yinger, *Paul, Judaism and Judgment According to Deeds*, 179.

21) P. W. Skehan and A.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B 39 (New York: Doubleday, 1987), 420.

시락서 32:25
ἕως κρίνῃ τὴν κρίσιν τοῦ λαοῦ αὐτοῦ καὶ εὐφρανεῖ αὐτοὺς ἐν τῷ ἐλέει αὐτοῦ
[그(하나님)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심판하시고, 그들로 그의 자비하심으로 기쁘게 하실 때까지]

시락서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벌주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에게 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이방인들을 향한 행위 심판 간의 첨예한 구분이 시락서 32:22b-26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 행위 심판은 오로지 이방 압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반면,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다. 물론, 시락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개개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행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급될 때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이방인을 향한 행위 심판(처벌)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유사한 패턴이 솔로몬 시편 2:32 이하 구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2:1-11에서 시락서 32:24-26 이하 구절(시락서 35:22-24; 시락서 36, Rahlfs의 LXX 판)과 솔로몬 시편 2편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념을 반박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4. 바울, 로마서 2:6-11, 시편 61:13(LXX) 그리고 행위 심판

로마서 2:1-11에서 바울과 그의 가상의 토론자는 '유대인들의 특권'과 '하나님의 행위 심판에 있어 차별 없으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22] 바울의 가상 토론자는 유대인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22) 로마서 2:1-11에 나오는 바울의 가상 논쟁자가 누구인지 견해 차이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 가상의 논쟁 대상자가 도덕적인 사람(a moralist)이라

바울은 행위 심판에 있어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을 주장하고 있다.[23] 이 논쟁의 과정에 바울은 자신이 옹호하는 행위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심판에 대한 근거로 성서 즉, 시편 62편(LXX 61)에 호소한다. 바울은 그의 유대인 토론자도 성서로 읽고 있는 시편 61편(LXX)을 지적하면서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행위가 최후 심판의 유일한 심판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그의 가상의 유대인 토론자와 더불어 시편 62편(LXX 61)에 대한 해석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상의 유대인 토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행위 심판의 이해는 시락서 32:24-26과 솔로몬 시편 2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바울의 이해는 이 두 초기 유대교 문헌들이 그 구약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편 62편(LXX 61)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가상적 논쟁자는 시편 62편(LXX 61)을 이해하는 데 초기 유대교 문헌인 시락서 32:24-26, 솔

고 주장한다. Richard H. Bell, *No One Seeks for God*, 137-138; S. K. Stower, *The Diatribe and Paul's Letter to the Romans* (Michigan: Scholar Press) 112; N. T. Wright, "The Letter to the Romans," 438 참조. 이 견해에 의하면, 이 도덕적인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 논쟁 대상자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1, 139; Francis Watson, *Paul, Judaism and the Gentiles: A Sociologic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109-110; Francis Watson, *Paul and the Hermeneutics of Faith*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4), 409;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128; James Dunn, *Romans 1-8*, 81-82; Simon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197-200; George P. Carras, "Romans 2, 1-29: A Dialogue on Jewish Ideals?" *Biblica* 73 (1992), 185. 필자가 다루는 다음의 내용(로마서 2:1-11에서의 시락서 32-33장, 솔로몬 시편 2편의 사용)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논쟁 대상자가 유대인임을 보여줄 것이다.

23) Carras, "Romans 2, 1-29: A Dialogue on Jewish Ideals," 193-196.

로몬 시편 2:34에 제시된 초기 유대교의 해석의 렌즈를 통해 시편 62편(LXX 61)을 이해하고 있고, 반면에 바울은 이런 초기 유대교의 해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고 있다. 바울의 가상적 토론자의 견해와 대조적인 바울의 시편 62편(LXX 61) 해석은 두 가지 사실 즉, (1)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바울의 재해석, (2) 시편 62편(LXX 61)에 언급된 심판의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4.1.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바울의 재해석

첫째로, 바울은 그의 가상의 논쟁자가 옹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수정한다. 로마서 2:1-6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연관시킨다. 시편 61:13(LXX)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그가 의인을 변호하시는 동기가 된다. 시편 61편(LXX)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상주시고, 이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신다. 따라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락서 32:24 이하 구절, 솔로몬 시편 2:32 이하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사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나라에 대한 관계를 언급하는 민족적 의미로 발전을 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이스라엘간의 긴밀한 관계, 다른 한편으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의 두 관계는 시락서 32-33장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상을 그의 심판과 분리시키고 대신에 그의 자비하심을 회개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위협적인 선언으로 사용한다. 로마서 2:3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비판한다. 그는 또한 4절에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라는 유

대인들의 믿음을 반박한다. 그렇다면, 로마서 2:3-4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적인 변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락서 32:25-26은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2:1-11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일을 행하기(2:1)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고(2:11) 주장한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시비걸기 위하여, 로마서 2:4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유사한 말을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춘다.

비록 쓰이는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비라는 개념은 시편 61:13(LXX)과 로마서 2: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편 61:13(LXX)에서 이 개념은 σοί κύριε τὸ ἔλεος라고 표현되어 있다. 한편, 바울은 로마서 2:3, 4에서 의문문을 사용해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그의 자비를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로마서 2:3, 4에 나타나는 이 두 개념(심판과 자비)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념,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비난하기 위해서 시편 61:13(LXX)을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바울이 시편 61:13(LXX)을 이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시락서 32:24와 솔로몬 시편 2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의 성서적 근거로 똑같은 구약 본문, 즉 시편 61:13(LXX)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똑같은 시편 61:13(LXX)에 호소하여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념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행위 심판, 이 두 개념이 시편 61:13(LXX)에서 아주 밀접

하게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κράτος τοῦ θεοῦ καὶ σοί κύριε τὸ **ἔλεος** ὅτι **σὺ ἀποδώσεις ἑκάστῳ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개념을 회개와 연관시켜 재해석한다(2:5).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유대인들에게 최후 심판 때 그들의 안전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다. 물론, 시편 61편(LXX)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 사이의 관계는 히브리어 본문인 시편 62편(HB)과 시편 61편(LXX)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편 62편(HB)은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자비하심(hesed)이 악인을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편 61편(LXX)에서는 구문적인 애매 모호성(syntactical ambiguity)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자비(ἔλεος)가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시편 61편(LXX)의 화자가 들은 두 가지 사실, 즉 (1) 하나님께 권능과 자비가 속해 있다는 사실과, (2)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구문상의 애매 모호성이 시편 61편(LXX)에 잠재하고 있다. 바울은 이런 칠십인 역의 구문상의 애매 모호성에 근거한 의미론적 잠재성(semantic potential)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시편 61:13(LXX)을 로마서 2:6에서 인용하면서 의도한 것은 하나님은 민족적인 구분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시편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구별만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 61편(LXX)에 호소하여 바울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그의 자비를 이스라엘에게만 배타적으로 보이시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유대인들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2. 바울, 행위 심판 그리고 시편 61편(LXX)

바울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념에 대한 비판은 그가 시편 61편(LXX)을 끌어 들이며, 최후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한 가상의 토론자의 주장에 대응해, 바울은 로마서 2:1-11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행위 심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최후 심판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유대인들의 언약적 지위가 아니라, 행위(순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파괴하기 위해, 시편 61:13(LXX)을 인용하며 또한 이 인용문을 로마서 2:7-11에서 설명하고 해석한다.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에 근거한 행위인데, 그의 시편 61편(LXX)사용과 이 시편에 대한 그의 해석과 설명(롬 2:7-10)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4.2.1. 의로운 자들(롬 2:7, 10)

바울은 로마서 2:7, 10에서 의인들을 언급하면서 시편 61편(LXX)에 나오는 의인,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 시편을 연상시킴으로써, 바울은 로마서 2:7, 10에 언급된 의

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또한 로마서 2:7, 10에 나오는 긍정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를 바탕으로 이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로마서 2:7, 10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사람은 종말론적 영광과 존귀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우선, 시편 61:13(LXX)에서 의인들은 그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 시편에서 보응(즉, 상과 벌)의 기준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행위들이다. 로마서 2:7에 오면 바울은 시편 61편(LXX)에서 의미하고 있는 신뢰(믿음)의 개념이 새로운 문맥인 로마서 2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로마서 2:7에 의하면 한 사람의 신뢰(믿음)는 선을 행하며 인내하면서 영광과 존귀 그리고 영생을 구하는 행위들로 표현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뢰(믿음)의 외적 표현이다. 이것은 시편 61편(LXX)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와 행위들 사이의 이와 비슷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로마서 2:6-10에서 바울이 시편 61편(LXX)에 언급되고 있는 의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은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인용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로마서 2:7, 10의 의인들을 시편 61편(LXX)에 언급되는 의인들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바울이 두 본문 사이의 의인들을 서로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 사실 즉, (1)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2) 의인을 묘사하는데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첫째, 바울은 로마서 2:7에서 시편 61편(LXX)에 나오는 인내, 영광, 존귀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로마서 2:7에서 의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시편 61:6, 8(LXX)은 하나님이 인내와 영광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이 시편에 의하면, 의인은 그 자신의 영광의 원천으로서 하

나님을 인내하며 신뢰한다.[24] 로마서 2:7에서도 역시 의인은 영광과 존귀를 인내하며 구한다. 이 같은 유사성은 로마서 2:7의 의인이 시편 61편(LXX)에서 묘사하고 있는 의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의 원천으로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시편 61편(LXX)과 로마서 2:7 두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의인은 분명한 유사성이 있다. 더 나아가, 시편 61:5(LXX)에 의하면, 의인의 존귀가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존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5, 8절).[25] 따라서, 의인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영광, 존귀 그리고 인내라는 동일한 단어들이 로마서 2:7과 시편 61편(LXX)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2:6-11에서 다름 아닌 시편 61편(LXX)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의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로마서 2:7에 나오는 의인의 행위들은 시편 61편(LXX)에 나오는 의인의 행위들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루고 있는 행위들이다.

둘째로, 로마서 2:7과 시편 61편(LXX)에 나오는 의인의 태도가 유사하다. 로마서 2:7에 의하면 의인들은 인내하며 선을 행한다. 이와 비슷하게 시편 61:6(LXX)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하며 조용히 기다린다. 특히, 인내(ὑπομονὴν)라는 단어가 의인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

로마서 2:7
τοῖς μὲν **καθ' ὑπομονὴν** ἔργου ἀγαθοῦ δόξαν καὶ τιμὴν καὶ ἀφθαρσίαν ζητοῦσιν ζωὴν αἰώνιον

---

24) Claus Westermann, *The Living Psalms*, J. R. Porter trans. (Edinburgh: T&T Clark, 1989), 154; A. A. Anderson, *The Book of Psalms, Vol.* 1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2), 453.

25) Westermann, *The Living Psalms*, 153.

시편 61:6(LXX)

πλὴν τῷ θεῷ ὑποτάγηθι ἡ ψυχή μου ὅτι παρ' αὐτοῦ **ἡ ὑπομονή μου**

시편 61:6(LXX)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자기 인내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2:7에서 의인들은 종말론적 복을 인내하며 구하고 있다.[26]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시편 61편(LXX)에서 하나님을 인내하며 신뢰하고 있는 의인의 태도를 연상시킨다. 결국, 로마서 2:7, 10에 언급되고 있는 의인들은 시편 61편(LXX)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신뢰하고 있는 의인들이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2:7-10에서 의인을 언급할 때, 시편 61편(LXX)의 의인들을 연상시키는데, 이 같은 사실은 로마서 2:6에서 말하는 행위 심판 기준이 시편 61편(LXX)에서 언급되고 있는 심판 기준과 같은 것임을 말한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들을 말한다. 바울도 로마서 2:6과 그 이하 구절, 2:7, 10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인용하고 있으며, 로마서 2:7 이하 구절에서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로마서 2:6-11에서 믿음에 근거한 행위(순종) 그리고 특히 로마서 2:7, 10에서 신자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2장에서 왜 바울이 직접적으로 믿음 혹은 신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런 말들을 피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서 2:6-11에서 구약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심 주제가 하나님에

26) Matthew Black,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9; org. ed. 1973), 45; Contra. Douglas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137.

대한 신뢰(믿음)인 시편 61편(LXX)을 사용해, 이 시편에서 가져온 언어들로 믿음(신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카라스(Carras)가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의 놀라운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직접적인 기독교적 언어와 내용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언어(God language)이다."[27]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그는 "로마서 2장을 유대인 내부의 논쟁(an inner-Jewish debate)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28]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그의 가상의 토론자와 더불어, 구약과 그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 논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2:16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다. 대신에 로마서 2:6에서 바울은 지배적인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인 시편 61:13(LXX)을 인용하며, 또한 시편 61편(LXX)과 이 시편의 의인들을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믿음과 신자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6-10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을 단순히 암시만 하면서, 로마서 3:21 이하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그의 더 구체적인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게다가, 로마서 2:7, 10에 나오는 의인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해석은 로마서에서 쓰이고 있는 영생(ζωὴν αἰώνιον)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2:7을 제외하면, 모두 세 번(5:21; 6:22, 23)에 걸쳐 쓰이고 있고, 이 경우 항상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2:7에 언급된

27) Carras, "Romans 2, 1-29: A Dialogue on Jewish Ideals," 189.

28) Ibid.

29) 바울이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간략히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법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다루는 로마서 3:1-2와 로마서 9-11장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영생 또한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로마서 2:7의 의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석의 길을 열어준다.

4.2.2. 로마서 2장에서의 바울의 논지 흐름과 시편 61:13(LXX)

이제는 지금까지의 우리 해석이 로마서 2장 전체의 바울의 논지와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2:13-14, 로마서 2:27-29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특히 롬 2:13)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오직 성령으로 그 마음이 할례를 받은 신자들만 이룰 수 있음을 말한다.[30]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고(롬 2:14, 27-29) 암시한다. 하지만 로마서 2:1-11에서 바울은 오직 행위만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단순히 암시만 한다. 또한, 시편 61:13(LXX)을 인용하여 바울은 최후 심판에서 결정적인 심판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를 표현하는 행위임을 암시한다. 그는 유대인들이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면서 악을 행한다면 최후 심판에서 그들은 아무런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름 아닌 로마서 2:16이 보여 주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계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물론, 바울의 가상적 유대인 토론자는 시락서 32:14-16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심을 인정하고 있다.[31] 시락서

30) N. T. Wright, "The Law in Romans 2," James D. G. Dunn ed., *Paul and the Mosaic Law*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31-150;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124-125; S. J. Gathercole, "A Law unto Themselves: The Gentiles in Romans 2:14-15 Revisited," *JSNT* 85 (2002), 27-49.

31) 구약과 유대교 문헌 가운데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divine impartiality)이라는 주제는 다음과 같은 본문들에 나온다: 신 10:17; 대하 19:7; 욥 34:19;

32:14-16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뇌물이나, 부정직한 제물을 받지 않으시며, 가난하다고 편애하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 시락서 32장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옹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솔로몬 시편 2:18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은 이스라엘 내부의 범죄한 유대인들의 처벌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을 더 발전시켜 이방나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상벌) 아래 놓인 것으로 확대 해석한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그들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편 61편(LXX)이 로마서 2:6-11을 이해하는데 공헌을 하는 점은 이 시편에 언급되는 지배적인 두 주제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심판의 기준'인 행위의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이 시편에서 아무런 모순 없이 공존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시편에서 행위 심판의 기준인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순종)이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고 해설하여 이런 행위의 측면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적해야 할 사항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직접적으로 시편 61편(LXX)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동등성은 바울이 사용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Ιουδαίου τε πρῶτον καὶ Ἕλληνος)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시편 61:13(LXX)을 인용하고, 시편 61편(LXX)을 전체 문맥에 연상시켜 주장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 행위에 따른 심판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위임을 말하는 것이다.

시락 35:12f (=32:24ff, Ziegler); 3 Esra 4:39; Jub 5:16; Ps Sol 2:18; syr. Bar 13:8, 44:4; LAB 20:4. 또한, 신 16:19; 출 23:6-8, 레 19:15; 잠 28:21; 시 82:2. 참조, Klaus Haacker, *Der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9), 63; Jouette M. Bassler, *Divine Impartiality: Paul and a Theological Axiom* (1982), 7-44.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상벌)을 받는다는 것이 시편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라는 구절을 덧붙여, 바울은 민족적인 구별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믿음)를 보여주는 행위(순종)에 따라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확대 해석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두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면, 바울은 이 시편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을 발견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행위 심판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편 61:13(LXX)을 통해 초기 유대교의 구약 해석과 바울의 구약 해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바울은 왜 로마서 2장에서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비와 행위 심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비판하기 위해 이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울은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인용하고 있다. 바울은 이 시편을 행위 심판의 문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행위 심판에 관한 이해가 시락서 32:22 이하 구절, 솔로몬 시편 2:32 이하 구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두 초기 유대교 문헌들이 다름 아닌 이 시편, 특히 시편 61:13(LXX)을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2:1-11에서 그의 가상의 토론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성서적 해석에 관해 논쟁을 벌이

고 있다. 바울의 요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순종)에 의해 각 사람을 심판(상벌)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1-11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별도로, 단순히 일반적 행위에 따른 최후 심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로마서 2:6-11에서 그 지배적 주제가 신뢰(믿음)인 시편 61편(LXX)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순종(행위)이 최후 심판에 필요하다고 암시하고 있다.

<주요어>

로마서 2장, 행위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등성, 초기 유대교의 구약 해석, 초기 유대교 문헌

<Key Words>

Romans 2, Paul's teaching of judgment in accordance with works, the equality between the Jews and the Gentiles, early Jewish interpretation of scripture, early Jewish writings

참고문헌

Bassler, Jouette M., *Divine Impartiality: Paul and A Theological Axiom*, SBLDS 59, Chico, CA: Scholars Press, 1982.

Bassler, Jouette M., "Divine Impartiality in Paul's Letter to the Romans," *Novum Testamentum* 26.1 (1984), 43-58.

Bell, Richard H., *No One Seeks for God: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Romans* 1:18-3:20, WUNT 106, Tübingen: J. C. B Mohr, 1998.

Carras, George P., "Romans 2,1-29: A Dialogue on Jewish Ideals," *Biblica* 73 (1992), 183-207.

Donfried, Karl Paul., "Justification and Last Judgment in Paul," *Interpretation* 30 (1976), 140-152.

Doubleday, 1987.

Dunn, James D. G., *Romans* 1-8, WBC 38A, Dallas: Word, 1988.

Dunn, James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London: T&T Clark, 1998.

Gathercole, Simon J., "A Law unto Themselves: The Gentiles in Romans 2.14-15 Revisite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85 (2002), 27-49.

Gathercole, Simon J., *Where is Boasting?: Early Jewish Soteriology and Paul's Response in Romans 1-5*, Grand Rapids: Eerdmans, 2002.

Hays, Richard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Heiligental, Roman, *Werke als Zeichen: Unterschungen zur Bedeutung der Menschlichen Taten im Frühjudentum, Neuen Testament und Frühchristendum*, WUNT 2/9, Tübingen: J. C. B. Mohr, 1983.

Kim Kyoung-Shik , *God Will Judge Every One According to Their Works: Psalm 62:13 and Judgment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iblical Tools and Studies, Leuven: Peeters, forthcoming.

Nygren, Anders, *Commentary on Romans, Translated by Carl C. Rasmussen*,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49.

Schreiner, Thomas, "Did Paul Believe in Justification by Works?: Another Look at Romans 2,"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3 (1993), 131-158.

Skehan, P. W and Di Lella A. A., *The Wisdom of Ben Sira*, AB 39, New York:

Snodgrass, Klyne R., "Justification by Grace to the Doers: An Analysis of the Place of Romans 2 in the Theology of Paul," *NTS* 32 (1986), 72-93.

Stuhlmacher, Pet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Commentary*, Scott J. Hafemann, trans., Edinburgh: T&T Clark, 1994.

Watson, Francis, *Paul and Hermeneutics of Faith*,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4.

Watson, Nigel M., "Justification by Faith; Judged by Works An Antinomy?" *NTS* 29 (1983), 209-221.

Wilckens, Ulrich, *Der Brief an die Römer*, EKK 6, Zürich: Benziger;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3rd ed., 1997.

Wright, N. T., "The Law in Romans 2," *Paul and the Mosaic Law*, WUNT 89, James D. G. Dunn, ed., Tübingen: J. C. B. Mohr, 1996, 131-150.

Wright, N. T., "The Letter to the Roma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10, Nashville, TN: Abingdon, 2002.

Yinger, Kent L., *paul, Judaism and Judgment According to Deeds*, SNTSMS 105, Cambridge: CUP, 1999.

Zeller, Dieter, *Der Brief and die Römer*, Regensburg: Pustet, 1985.

Ziegler, Joseph, *Sapientia Iesu Filii Sira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Ziesler, John, *Paul's Letter to the Romans*, London: SCM, 1989.

<초록>

바울은 왜 로마서 2장에서 행위 심판을 말하는가?

-시편 61편(LXX)에 대한 바울의 해석 논쟁-

김경식
(횃불 트리니티대 및 안양대 강사, 신약학)

본 연구는 로마서 2:1-11의 본문을 통해 초기 유대교 해석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울의 구약 해석을 다룬다. 이 연구를 통해 바울의 구약 사용의 관점에서 로마서 2:1-11을 접근하는 것이 이 본문 해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본다.

로마서 2장은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2:6-11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됨을 주장 하는 듯하지만, 로마서 3장에서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3:10)고 주장하여 근접 문맥인 2장과 3장 사이에서 정반대의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 2장의 행위 심판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관련해서 연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바울에 대한 새 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 이론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는 대립 구도를 믿음과 행함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에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율법

의 행위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시도해 왔다. 즉, 이방인이의 구원문제에 있어 이방인은 할례, 음식법, 안식일 법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주장이라고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전통적 주장(믿음과 행위의 대립 구도)이든 후자의 새 관점 주장(믿음과 선민사상의 대립 구도)이든 로마서 2:1-11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점을 간과해 왔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2:13(61:13, LXX)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이 이 시편의 초기 유대교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울은 왜 로마서 2장에서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비와 행위 심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비판하기 위해 이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울은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인용하고 있다. 바울은 이 시편을 행위 심판의 문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행위 심판에 관한 이해가 시락서 32:22 이하 구절 그리고 솔로몬 시편 2:32 이하 구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두 초기 유대교 문헌들이 다름 아닌 이 시편, 특히 시편 61:13(LXX)을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2:6에서 시편 61:13(LXX)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2:1-11에서 그의 가상의 토론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성서적 해석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바울의 요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순종)에 의해 각 사람을 심판(상벌)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Abstract>

Why does Paul Argue for Judgment According to Works in Romans 2?: Paul's debate over early Jewish interpretation of Psalm 61(LXX)

Dr. Kyoung-Shik Kim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Anyang Uni.)

Romans 2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assages in Paul's letter to the Romans. In particular, Romans 2:6-10 seem to suggest that Paul argues for justification by works apart from Christian faith. According to Romans 2:6 and 10, the righteous ones are said to receive eternal life on the basis of their good works. Many scholars have been puzzled by Paul's positive statement of good works as the grounds for eternal life. Does Paul assert that good works apart from Christian faith are enough bases for justification at the eschaton? Scholarly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idea of judgment according to works in comparison with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As a result, they have failed to see the fact that Paul employs Psalm 61:13(LXX) in conjunction with the theme of the final judgment in Romans 2:6. Although there have been scholars who note in passing the use of Psalm 61:13 in Romans 2:6, this

study highlights Paul's use of Psalm 61:13(LXX) in Romans 2:6 by arguing that the apostle not only cites Psalm 61:13(LXX) in Romans 2:6 but also he explains the psalm in Romans 2:7-10. Furthermore, we will investigate why and how Paul employs the Psalm text in the context of judgment according to works (Rom 2:1-11).

On the basis of Paul's use of Psalm 61:13(LXX) in Romans 2:6-10 and thematic parallels among Romans 2:1-11, Sir 32:24-26 and Psalm Solomon 2, our study argue that Paul debates an early Jewish interpretation of Psalm 61(LXX) which Sirach 32:24-26ff and Psalms of Solomon 2 present and that in doing so Paul uses Psalm 61:13(LXX) to criticize a false Jewish presumption on God's mercy and his election.

Paul cites Psalm 61:13(LXX) to refute the Jewish presumption that they could escape God's final judgment because of divine election. In Romans 2:1-11, Paul and his interlocutor are involved in a debate over Jewish privilege (which the interlocutor advocates) and God's impartiality in judgment according to works (that Paul argues for). In so doing, Paul appeals to scripture, namely, Psalm 62(LXX 61) as evidence for God's impartial judgment on the basis of one's deeds. The apostle points to Psalm 61(LXX), which his interlocutor also reads as scripture, to show that not ethnic distinction but works which exhibit one's trust in God are the only criteria for God's final judgment.